

여수세계섬박람회 D-1년...섬 환경·문화적 가치 재조명

5일 여수박람회장서 ‘D-365 행사’ ...성공개최 퍼포먼스·공연 등 박람회 개막 맞춰 대회·포럼 등 개최... ‘섬 방문의 해’ 지정 요청도

1년 뒤인 내년 9월, 기후 위기 최전선에 놓인 섬의 지속가능한 보전·개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바다와 섬의 미래를 향한 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린다. 1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1년 앞둔 오는 5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D-365 행사’를 연다. 행사는 식전공연, 성공개최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박람회 조직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박람회 ‘봄 열’을 조성하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며 티켓 판매 및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D-365 행사에 맞춰 ‘2025 국제 섬포럼(9월 4~5일),’ 2026 세계 섬 도시대회(9월 4~5일) 등도 진행한다. 조직위는 또 내년 섬의 날 행사(8월 6~9일)를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열고 섬박람회 개막에 맞춰 ‘세계 섬 도시대회’와 ‘국제 섬 포럼’을 개최해 섬 보유국가 도시들과 섬생태·문화 연구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위는 이와함께 내년을 ‘섬 방문의 해’로 지정토록 정부에 요청, 섬 박람회와 연계한 섬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로,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일대에서 열린다.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 치러지며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육지와 단절된 섬에 대한 경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박람회장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대 진모지구에 조성되며 랜드마크인 주제관을 비롯, 섬 생태관·섬 미래관·섬 공공관·섬 문화관·섬 놀이터와 섬 식당, 특별공연장으로 구성된다. 박람회 전시관은 미디어아트 등 첨단 기술을 활

용하여 섬에 가지 않아도 섬을 경험한 듯 꾸미고 섬 해양·생태·문화는 물론 미래항공모빌리티, 위그선 투어 등 미래 기술을 담은 전시도 선보인다. 전 세계 유명한 섬과 한국의 섬을 축소판으로 만든 섬 테마존, 테마별 예술작품과 마스코트로 조성된 아트 포토존 등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든다는 구상도 세워놓았다. 박람회기간 내내 섬을 모티브로 하는 주제공연, 월드 스페셜데이, 지자체의 날 등을 운영해 섬 보유 국가와 지역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조직위는 내년 1월부터 전시관 제작·설치에 나서,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또 여수시 화정면 개도에 섬어촌 문화센터를 조성해 부행사장으로 꾸미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섬섬캠핑장 등을 갖춰 관광객들이 개도나 금오도 비렁길 탐방로를 걸거나 섬 연안 크루즈 체험, 해산물 채취 체험 등을 통해 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박람회 기간 세계 30개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3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현재 13개국(14개 도시)이 참여를 확정지은 상태다. 또 국내의 90개 섬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박람회 기간 중 전시부스 등을 꾸려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조직위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수시와 교통·숙박·행사 인프라 확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행사장 주변에 주차장(7306면)을 확보하고 셔틀버스(10개 노선 43대)를 193회 운행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했고 행사장을 오가는 여객시 증편 운행도 추진한다.. 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365일 뒤 365개의 섬과 바다를 무대 삼아 섬의 가치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해남 돌김 활용 ‘즉석 된장 김국’ 출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개발 지원 결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31일 ‘해남 임하 어촌계가 수확한 돌김을 활용한 즉석 된장 김국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즉석 된장 김국은 돌김을 동결건조 블록 형태로 만들어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제품은 어촌마을기업 ㈜마도에 기술이 이전돼 상품화됐다. 된장 김국은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즉석 간장 김국’의 후속작으로, 돌김 고유의 풍미를 살리고 된장의 구수한 맛을 가미시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신제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산물 직거래 쇼핑몰 ‘바이씨(buysea.co.kr)’에서 구매 가능하

며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통해 가공기술과 유통역량이 부족한 어촌 마을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신제품 개발과 현장 기술을 지원하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생산, 유통, 경영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어촌 마을기업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기술 지원으로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 청년 아카데미 개강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30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열린 ‘제7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해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축산분야 탄소중립 선도...전남도, 3년 연속 전국 최다 인증

올해 89곳 저탄소 축산물 인증 획득

농도(農都) 전남이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다. 전남은 올해를 포함, 3년 연속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축산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인증 받는 등 전국 인증농가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89개 축산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3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한 전남도는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로, 무항생제와 HACCP(해썹), 유기축산 등 국

가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과정에서 탄소 감축기술을 도입해 온실가스를 일반농가 기준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했을 때 인증받을 수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등록된 축산농가는 전남이 가장 많다. 전남은 올해 89개 축산농가가 신규 인증을 받아 총 148농가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인증농가의 25%로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내 축산농가의 탄소중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가 전국 1위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3단계(서류평가·현장평가·최종심

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통 시 인증 표시가 부착되며, 탄소중립 가치에 공감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저탄소 인증 마크와 함께 축산물이력제시스템을 통해 탄소중립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저탄소 인증 외에도 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를 활용한 발전사업에 나서는 등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단위농협과 함께 고체연료 생산시설 마련에 나섰으며,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전기에너지 생산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르면 갑니다”...광주투어버스 오늘부터 운행

광주송정역·기아챔필 등 12곳...1일 탑승권 도입

광주시가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민과 관광객의 발이 되어줄 ‘광주투어버스’를 운행한다. ‘광주투어버스’는 수요응답형(DRT) 교통체계를 적용한 관광형 버스로, 이용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류장을 선택해 호출하면 버스가 찾아와 원하는 거점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이다. 운행 구간은 광주송정역(KTX), 유스퀘어버스 터미널, 농성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비엔날레, 양림오거리, 사직전광대, 서창감성조망대, 기아챔피언스필드, 대인시장, 광

주국제야구장 등 12개 주요 지점이다.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을 비롯해 서창감성조망대와 대인시장까지 노선을 확대해 행사장과 주요 관광지를 폭넓게 연계한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국내외 관광객들이 교통거점에서 행사장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KIA타이거즈 홈경기 날에는 기아챔피언스필드와 유스퀘어·농성역을 순환하는 노선을 별도로

운행해 원정 관람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KIA 홈경기 날에는 밤 10시 30분까지 연장된다. 요금은 성인 1700원, 청소년 1350원, 어린이 850원으로, 모바일 결제와 단말기 태그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단말기로 결제할 경우 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도 지원된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 1일권(3000원)도 도입돼 24시간 무제한 탑승할 수 있으나 환승은 불가능하다. 이용 안내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관광 홈페이지 ‘오페광주’와 광주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앱은 28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위대한 유산, K-소리

2025 구례동편소리축제

2025. 9. 18.(목)_9. 20.(토)/3일간

구례군 서시천 체육공원

개막제 9. 19.(금) 19:00

젊은 국악인 & 명인명창전 9. 20.(토) 19:00

19일

아름다운 나라

성악가 신 문 희

20일

미스트롯 정 미 애